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발행인 김종기
편집인 정원상
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Tel. 053-603-3920
Fax. 053-603-3929 www.gbe.or.kr

자명종

→ 교육활동 및 회의활동 2~3면

→ 행사 및 현장활동 4면

→ 공무원연금 5면

→ 교육연맹 및 공무원노총 6면

→ 칼럼 7면

→ 종합 8면



제5대 김종기 위원장 취임식 및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노사·상생 협약식

노사 같이·함께·더불어
‘명품 교육’ 만든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5. 4. 15.(수) 10:30에 평산아카데미에서 제5대 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종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조합원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노력하여 모두의 희망을 담은 새로운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고, 이영우 교육감은 축사에서 “지난 4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창구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자.”고 하였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1주기, 공무원 연

금 개악 등 공직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간단한 취임식을 하는 한편 축하 화환은 사양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 후원금으로 대신하여 5월 중 사회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상호 협력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령 준수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정치적 중립 및 선진 노조 문화 확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 △명품! 경북



교육 완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생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협력해 경북교육 발전에 함께할 것을 희망한다.”며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

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이영우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발전적 소통문화 정착과 선진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증대시켜 노사의 하나된 힘으로 명품! 경북교육 완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교육노조 임원 노동교육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4.(토) 평산아카데미에서 제5대 집행부 당선자와 지부 신입당선자(지부장, 사무국장) 등 33명을 대상으로 임원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 앞서 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은 “새로운 집행부와 지부 임원들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여 노조활동을 한다면 더욱 발전된 경북교육노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2년간 노사화합이 잘 이루어져 조합원의 권익 신장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하였고, 김종기 위원장은 “조합원으로써 그동안 자신을 위해 생활했다면, 노조 임원으로써 활동하는 2년은 조합원들을 위해 살

아가야하는 것이 노조 임원의 자세”라며 “자신의 권익보다는 타인 즉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임원으로서의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교육은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노조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 및 ‘임원으로서의 다짐’ 등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주경영 공무원단체담당과 장세은 주무관이 배석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노조 임원 및 대의원들의 노동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활동과 조합원의 권익신장 향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제5회 영남지역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10.(금) ~ 11.(토) 울산교육수련원에서 제5회 영남지역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는 영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의 친목도모와 연대력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 극대화화 노조 간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를

공유하여 투쟁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행사 세부일정으로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교육노조 순으로 단위노조 우수사례 및 현안사안 발표가 있었는데 경북교육노조는 2014년도 노사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58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15.(수) 17시에 제58차 정기상임위원회를 평산 아카데미에서 개최하였다.

회의 안건으로 제48차, 제49차 경북교육노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대 운영한 노조 업무용 차량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노조 업무용 차량 운용에 관한 건과 경북교육노조를 법인화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자산관리가 용이하여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경북교육

노조 법인 등록에 관한건을 논의하였다. 채택된 안건은 참석한 상임임원 20여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기위원장은 제5대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하는 의미가 큰 회의로 노조임원은 새마음 새뜻으로 조합원과 늘 가까이 함께하는 노조, 과장이 없는 진솔한 노조, 변명하지 않는 노조, 책임지는 노조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자고 하였다.

제59차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23.(목) 9시에 경북교육노조 회의실에서 제59차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 공노총) 투쟁지침 제34호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1인 시위 △4.25 결의대회 △총파업 총투표 등 투쟁 전개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른 새벽에 출발하여,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과 홍보전에 앞장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노조 임원으로써 앞장 서 일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노력이 있어 연금 개악이 막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공적연금을 강화를 위하여 공노총과 함께 경북교육노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제18차 상임집행위원회

경북교육노조는 2015. 5. 12.(화) 10시 30분에 경북교육노조 회의실에서 제18차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상급단체(교육청노조) 의무금에 관한건을 주안건으로 논의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상급단체 의무금에 대한 인상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의무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제60차 정기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하였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

경북교육노조는 2015. 5. 7.(목)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1,000kg을 경상북도교육청에 기증하였다.

이는 지난 2015. 4. 15. 제5대 위원장 출범식 때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축하 화환대신 기탁 받은 성금 중 일부를 기증한 것이다. 기증된 쌀은 2015. 5. 8. ~ 5. 11. 사이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

을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 52명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2015. 5. 12.(화) 나눔과 봉사를 행함으로써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직문화 조성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합동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인 의성 자혜원에서 사회봉사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경북교육노조 임원 20여명과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4명이 함께 하였다.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표창 수여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15.(목)에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백승준, 전삼용, 전희진, 김상준, 성수용, 전갑진, 이상길, 최연성, 강건우, 김연숙 10명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가 있었다. 이번 노사

관계 유공자 표창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행되었다.



2015년 노사합동 워크숍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15. ~ 16. 이틀간 평산아카데미에서 2015년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노사상생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워크숍은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우 교육감 등 노사 측 간부 총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고용노동연구원 배일도 교수의 특강과 노사상생 발전 방안에 대하여 팀별 분임 토의

및 발표를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경북교육 발전에 함께할 것을 희망하며,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노총 단식투쟁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8.(수) 국민 노후생존권 사수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번 단식투쟁은 정부여당의 공적연금 개악 및 연금민영화에 맞서 국민노후생

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 광역 시도별 공노총 산하 약 90개의 단위 노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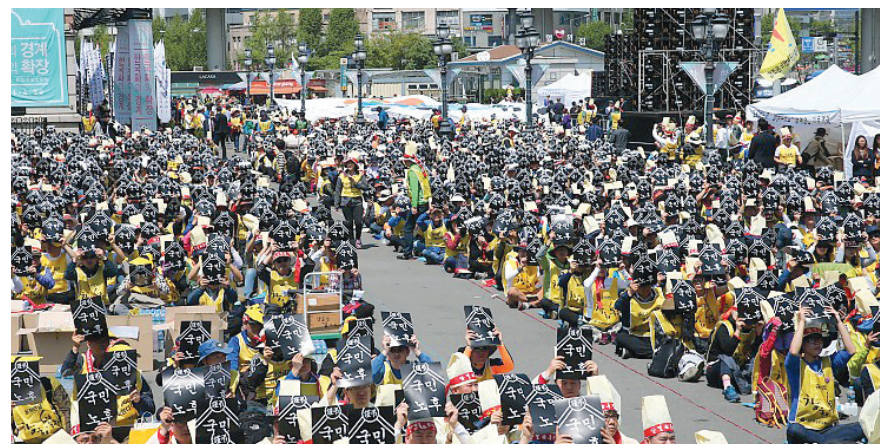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출근선전전 홍보

경북교육노조 임원 30여명은 2015. 4. 23.(목) 07:30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에서 '공적연금 강화' 홍보전을 실시하였다.

이날 공무원연금 홍보 전단지와 물티슈 400개를 출근하는 본청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본관 전정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425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25.(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노후복지 장례식 및 425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 80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른 새벽 지부별로 출발하여 오전 12시경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였다.

구호를 제창하면서 장엄하게 서울 시청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거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참석자들은 공노총 소속 조합원 7천여명과 함께 대회를 진행하였다. 오후 1시 "제1부 국민 노후복지 장례식"과 "제2부 국민 노후복지의 상여 운구" 행사가 있었다. 500m의 운구 행렬은 국민노후생

존권 사수에 대한 염원과 각오를 다지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장엄하게 서울 시청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거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국민노후생존권 사수 공적연금강화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경북교육노조는 2015. 4. 27.(월) 오전 11시 공노총 대구 경북연합 소속 임원 40여명은 "국민 노후 생존권 사수 전국 동시 단식투쟁"에 앞서 대구광역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에서 임원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존권을 위하여 어떠한 협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행정실 법제화 추진 간담회 (신성범 위원 면담)

경북교육노조는 3월 27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위원을 만난 데 이어, 4월 14일(화) 오후 새누리당 신성범 법안심사소위 간사를 만나 행정실 법제화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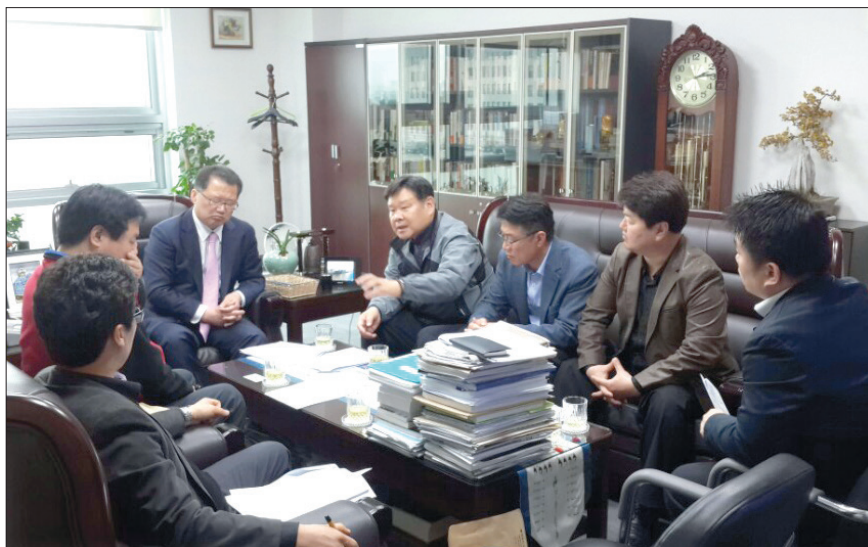
2012. 9. 25 유은혜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4월 중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법안 대표발의자인 유은혜 위원과 교문위 신성범 법안심사소위 간사를 만나 “단위학교의 행정조직과 행정실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사무분장 규정이 미비해 교원과의 애매한 역할 분담 문제에서 서로간 갈등이 빈번히 빚어지고 있다”며 “이번 의원 입법 발의는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행정실 설치를 법제화하고 행정실 근무자의 직급, 배치기준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선진화된 학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이외에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행정활동비’ 수당 지급,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방과후 학교



업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의 건의로 신성범 의원은 ‘공공도서관 행정체제 일원화’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하였으며,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실도 방문해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후 교문위 새정연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실에는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 경남교육노조 김성희 위원장, 대구교육노조 김윤조 위원장, 충남교육노조 이관우 위원장, 충북교육노조 신금우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유은혜 의원실은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변종례 부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이 동행하였다.

학교행정실법제화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의원 면담

경북교육노조는 4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울산교육노조 정준환 위원장, 부산교육노조 편경천 위원장, 경남교육노조 김성희 위원장 및 노조임원들이 학교행정실법제화 국회통과를 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서용교 국회의원(국회 교문위 소속)과 면담을 가져 이번 소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았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요구

하며 국회 교문위 위원실을 향의방문하였다.

이날 오전 11시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이정현 수석부위원장, 변종례 부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구교육노조 김윤조 위원장, 충북교육노조 김광소 위원장, 경남교육노조 진영민 사무총장 등은 교문위 신성범(새누리당) 간사실과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간사실을 방문한 데 이어 법안 대표발의자인 유은혜 의원실을 찾았다.

이들 임원 10여명은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던 「초·중등교

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상정목록에서 빠짐에 따라 교문위원들을 긴급 향의방문하여 이번 소위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각 위원실에서는 이번 소위에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육청노조는 국회에 남아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행정실 법제화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에 대한 심민철 지방교육자치과장 향의 방문

경북교육노조와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2015. 4. 28.(화) 9시경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여야 국회의원 및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법안의 타당성을 역설하였으며, 오전 11시경 이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것에 대해 해당 위

원실을 향의 방문하였다.

이날 향의 방문에는 교육청노조 시도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김종기 위원장, 박흥기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앞으로 경북교육노조는 교육청노조와 함께 교육부 등 대 정부 투쟁을 통해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쟁취할 것이다.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공무원노동 정책자문위원장)

“학부모가 교육감 선거에서 말을 못한다면”

공무원과 정치는 상극일까? 공무원이 ‘정치’하면 정말 안될까?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이 대표적으로 그런 활동일 텐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란 명목으로 그런 활동에서 쫓겨나 있다(힘없는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막상 중립이 요구되는 높은 분들은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가령 영국에서는 그 반대다. 영국에서 고위공무원은 정당가입만 허용되나 하급공무원은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무원 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치활동에 울타리를 치고자 동원되는 법들도 가지가지다. 공무원노동법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사립학교법 등이 제각각 칼을 들고 버리고 있다. “정치활동, 하기만 해 봐라”.

노동운동은 정치운동을 다른 하나의 날개로 삼는 사회변혁운동이다. 하구(河口)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듯이 자연스레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은 하나로 녹아든다.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노동운동이 정치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다.

노동조합,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치적인 단체고 정치를 본질로 삼는 단체다. 우선은 사용자가 정부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이다. 보수나 근로조건도 법으로 정해진다. 국회에서 정해지는 그 행태가 바로 정치적이다.

그저께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때로는 수학적인 계산을 거쳐 “그럴 수밖에 없는 안”이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합리화의 과정을 거쳤을 뿐 결국은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었다.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선 것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공무원노동법은 가장 정치적인 단체에 정치활동의 금지라는 굴레를 씌워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노사관계가 제도의 틀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그나마 정치활동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줄어든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뒤통거리기는 오리궁둥이다. 정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탓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단체교섭의

실종으로 나타난다. 아직도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무원의 보수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보수교섭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사용자(정부)를 정치적으로 응징할 수도 없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민간에 비해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에 비해서는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언명은 분명하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의 정상적인 행사에 필수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진다”(제151호 협약).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입도 뿔긋 못하는 학부모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위법이어서도 곤란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귀환’을 막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서 지배세력의 정치적 독점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을 지배계급의 정치적 도구

로 남겨두기 위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정부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마저 봉쇄하고 있다(복무규정). 정부의 정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자신이 없어서일 터이겠지만 그 결과는 공직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토론과 소통이 거세된 공간이 민주적일 수는 없다. 정치활동의 금지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셈이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은 물론 정치적 자유까지 보장하는데 우리는 왜 안될까. 한 때는 우스갯말로 “군인과 사람이 걸어간다”고 했다. 아직도 정치활동에선 “공무원과 시민이 있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공무원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수의 분향인 경북, 그것도 보수의 직역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에 나설 수 있을까.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정치가 문제라면 답도 정치에 있을 터, 교육청노동조합 ‘금단의 땅’에 발을 내딛는데 앞장 설 수는 없을까.

프로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석사
영국 Warwick 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

주요 경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 노동개혁 T/F팀장(비서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대자동차 노사자문위원회 대표
한국GM 노사자문 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주요 논문 및 저서

- 『공무원 노사관계: 단체교섭구조를 중심으로』(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6)
-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공저, 연구책임자, 한국노동교육원, 2006)
- “현대자동차의 세계화전략과 노동조합의 저항적 실리주의”, 『산업노동연구』, 제15권 1호(2009)
- “현대자동차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시사점”, 『동향과 전망』 제76권(2009, 여름호)
-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재생전략의 과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2010)
-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산업노동연구』(2009)
- “장시간 노동이 일과 삶의 갈등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2011)

동행(同行)

진정한 여행

삶은

인생의 여정, 여행이라고 한다.

소동파(蘇東坡)는 “만권서(萬卷書) 만리행(萬里行)을 화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화가만이 아니라 인간이 전문가적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독서와 여행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사에서 일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을 한 번쯤 꿈꾸기도 한다. 그러한 여행은 삶을 되돌아보고 생활에 동기 부여하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편승하여 국가마다 또는 지역마다 역사적·문화적·예술적 의미를 부여하는 여행지를 개발하여 여행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남녀노소가 제일 좋아하는 도보 여행길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지’ 또는 ‘축복과 치유의 길’로 불리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한다.

아마도 그 순례 여행의 원조가 신라의 해초스님께서 인도까지 구도를 위해 순례한 것이 아닌 가해서 뿌듯하게 생각한다. 일전에 요트에 몸을 싣고 맨 몸으로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으로 세계를 일주한 한국인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는 “해가 지면 반드시 해가 뜨더라. 우리는 물로 이뤄진 아름다운 별에서 태어났다. 이 별에 태어난 것 자체로 희망이다.”라고 하였다.

여행은 특히, 청소년기에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이야기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자신의 삶의 자산이 된다. 이런 노력과 행위들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자신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삶들에 대한 폭넓은 앎과 이해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요즘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어 여행의 유효한 점을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교육적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터키의 혁명시인 히크메크는 ‘진정한 여행’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함께 인생 가장자리로 가기 전에 진정한 여행을 위해 출발해보는 것이 어때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자명종’에서는 조합원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글,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글을 03ina@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한_수시접수
- 분량_200자 원고지 10매 이하
또는 A4 2장 자유 분량
- 장르_시, 수필, 칼럼, 논평 등 제한 없음

※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과 필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시오.

제5대 김종기위원장 취임식때 화환 대신 성금으로 도와 주신 분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윤조 위원장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윤주용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김명훈 부교육감	KT 노동조합대구지방본부	김해관 위원장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관우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단	김희철 단장	한국전력노동조합 대구본부	이동훈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구미공무원노동조합	남원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노동조합	이명교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공보관	강신기 공보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영호 위원장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이순광 위원장
전국기초자치단체노동조합	강창조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경찰청노동조합	이연철 위원장
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	김갑식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경북지방본부	류천우 위원장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대구본부	이원수 위원장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김관필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산지부	박영락 지부장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이종호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김광곤 과장	국토교통부노동조합	변혁철 위원장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이흥기 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광소 위원장	대구북구청노동조합	석현정 위원장	학교보건행정연구회	장보상 회장
KT동대구 법인	김근주 공공노조 자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송건수 과장	경북조리사회	전위숙 회장
대구은행노동조합	김기만 위원장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송지영 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준환 위원장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김도형 위원장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신동근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	조기정 과장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조정관	김동구 조정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지부	신영찬 지부장	경상북도교육청운전원연합회	최광환 회장
경상북도사서연구회	김동섭 회장	행정부노동조합	오성택 위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편경천 위원장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성희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	외교부노동조합	한상구 위원장
대구경북공공노동조합협의회	김영택 회장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완근 위원장	한샘회	우성희 회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지부	김용수 지부장	담배인삼노동조합 대구지부	유재득 위원장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김원설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노동조합	윤세정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과	김유태 과장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윤영태 과장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신 성금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